

해외 신흥 디자인 시장에 등지를 틀다: 해외 한국디자인 거점

2013

디자인진흥원사

- 『K-DESIGN』발간
- KIDP 중국사무소(KIDP China) 개소
- 서비스디자인 전담조직 개설
(서비스디지털융합팀)
- 디자인표준계약서 개발 및
디자인공지 증명제도 운영
- 디자인서바이벌 <K디자인> 제작
발표회(MBC드라마넷)
- 디자인 영재 아카데미 개원
- 한·중 디자인 포럼 개최

한국 디자인사

- 충의대학교 실기고사 폐지
-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개관
- 국가디자인정책포럼,
세계디자인정책포럼 개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 사회사

-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 박근혜 정부 출범
- 이석기 의원 구속
- 성년 기준 연령,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
- 삼성전자 한국 최초 분기 이익
10조원 돌파

KIDP는 우수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역량 있는 디자인 기업이 해외의 신흥 디자인 시장에서 펼치는 비즈니스 활동을 돋고 있다. 한국 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해 디자인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디자인 기업의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해왔다. 동시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전략적인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 3월 베이징에 KIDP 중국사무소(KIDP China)를 열어 한국 디자인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디자인 거점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다. 중국은 당시 한국 디자인 회사의 주요 교류국이었으며 베이징은 디자인산업 발전 기반이 풍부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디자인 기업 수가 많은 편이었다. 또한 베이징시 산하의 베이징산업디자인센터, 중국산업디자인협회 등 디자인 관련 협력 기관이 위치해 공동 사업 추진과 중국 전역으로의 사업 확대가 쉬워 1호 디자인 거점 구축 지역으로 선점됐다. 당시 중국사무소 개소를 기념해 ‘디자인과 창조 경제, 한중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다’라는 주제로 한중디자인포럼이 개최되었다. 조동성 서울대 교수가 주제 강연을 진행했고, 김영준 삼성전자 전무는 ‘융합 디자인을 통한 혁신 추구’를 주제로, 천동량 베이징산업디자인센터(BIDC) 대표는

‘자주 창신의 중국, 관건은 디자인’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2015년 10월에는 세계적인 소상품 도매시장으로 알려진 중국 이우시에 한국디자인 이우센터를 개관했다. 한국 디자인 회사의 용역 수주를 비롯한 생활상품 판로 개척 등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와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인디자인, 퍼셉션, 디자인네오그룹, 컴포지션 등 약 11개의 한국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어서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호의적인 베트남에도 해외의 한국 디자인 거점을 마련했다. 2018년 10월, 하노이에 문을 연 한베디자인센터에는 플랫폼, 샘파트너스 등 국내 디자인 회사 4개가 입주해 한국 기업과 디자이너가 베트남을 무대로 활약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에는 가전, IT 등 첨단·창의 산업 특화 단지로 유명한 광동성 순데에 한국디자인순데비즈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중국 내 한국 디자인 거점은 3개로 늘어났다. 광동 지역 디자인산업 단지인 광동공업디자인성에 위치한 이곳에는 국내 디자인 회사 10여 개가 입주했으며, 사무실을 포함하여 교육장과 전시 공간 등을 두루 갖췄다. 광동 지역은 중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지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디자인 수요가 크게 늘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후발 주자의 이점을 누리며 디자인 발전을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건너뛰는 비약적 발전의 회오리 속에 있다. 비록 근래 들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국제 정세 또한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정치,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이에 KIDP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개별 역량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시장 조사를 추진해 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베디자인센터 외부 전경